

# 한국어 명명구문의 통시적 변화\*

이 승 재 \*\*

## I. 머리말

이 글은 한국어의 명명구문이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논의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명명구문은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부여하는 구문으로서 불경 자료에 자주 등장한다. 漢譯 불경에서 ‘P 名 Q’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명명구문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sup>1)</sup> 이 명명구문은 ‘P를 일컬어 Q라고 한다’, ‘P는 이름이 Q이다’의 두 가지로 번역된다. 앞의 것은 ‘名’을 동사로 번역한 것이고 뒤의 것은 명사로 번역한 것이다. 이 둘을 각각 ‘名’의 동사적 용법과 명사적 용법으로 구별하기로 한다. ‘名’의 동사적 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P에 대격의 ‘-를’이 통합되는 데에 비하여 명사적 용법에서는 주제 보조사 ‘는’이 통합된다. 이 차이는 통사론적으로 아주 큰 차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통사변화를 논의할 때에 흥미로운 주제가 된다.

동일한 구문 ‘P 名 Q’를 두 가지로 번역한다면 동사적 용법과 명사적 용

---

\* 이 연구는 2007년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자유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이 글의 초고를 읽고 여러 가지를 지적해 준 장경준(고려대) 교수께 감사드린다. 지적된 내용의 일부를 수용하여 초고를 수정하였지만, 이 글의 모든 잘못이나 실수가 필자 자신의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1) 유가 경전에서는 ‘名’ 대신에 ‘曰’이 이용되기도 하지만 불경에서는 대부분 ‘名’이 쓰인다.

법의 선후 관계를 동시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어느 용법이 먼저 발생하였는지, 두 용법 사이의 관계가 통시적 대체 관계였는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동사적 용법이 명사적 용법으로 대체되는 통시적 변화가 있었음을 문헌 자료를 통하여 논증하게 될 것이다.

자료는 주로 12~13세기의 석독구결, 14~15세기의 송독구결 등의 구결 자료에서 찾되 15세기의 언해문 자료도 적극적으로 참고하기로 한다. 부분적으로는 11세기의 부점구결 자료도 참고할 것이다. 통시적 변화를 논의할 때에는 수 세기에 걸치는 자료를 두루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II. 명명구문의 정의

명명구문은 어떤 개념이나 사물에 이름을 부여하는 구문을 가리킨다. 명명구문의 대표적인 예로는 한문의 ‘P 名 Q’를 들 수 있다. 이 글에서의 P는 명명의 대상을, Q는 그 대상에 주어진 이름을 가리킨다. ‘名’의 위치에 ‘謂, 曰, 云, 爲’ 등이 오는 예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명명구문에 넣을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이들을 명명구문에서 제외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명명구문이라는 명칭보다 인용구문이라는 명칭이 더 적합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명명구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박진호(1998)에서도 ‘謂, 曰, 云, 爲’ 등이 쓰인 문장을 명명구문에서 제외하였다.

박진호(1998)에서는 명명구문을 뜻풀이구문과 구별하기도 하였는데, 개념을 먼저 제시하고 이름을 제시하는 방식을 명명구문이라고 한 반면에 용어를 먼저 제시한 다음 용어의 의미를 풀이하는 방식을 뜻풀이구문이라 하였다. 이에 비하여 하귀녀(2006)은 이 둘을 명명구문 한 가지로 묶었다. 이들이 명명구문을 설정하게 된 데에는 석독구결 자료가 바탕이 되었는데, 필자는 명명구문과 뜻풀이구문을 구별한 박진호(1998)이나 둘을 하나로 묶은 하귀녀(2006)에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1) a. 是川乙 名<sub>下2</sub> 無記法 : ノネナ | 〈화소35: 08,18-19〉

- b. 이를 일하 無記法여 호리거다  
 (2) a. 何<sup>스</sup> 等<sup>ッ</sup> 一<sup>乙</sup> 爲<sup>五</sup> 卽<sup>一</sup> / 소<sup>모</sup> <유가20: 5,17-22>  
 b. 엇(?)오 다흔을 卽이다 호리고

(1)은 ‘P 名 Q’의 구문에 속하므로 명명구문임이 확실하지만 (2)의 ‘P 爲 Q’는 명명구문인지 불확실하다. 박진호(1998)에서는 이 둘을 구별하여 (1)을 명명구문, (2)를 뜻풀이구문이라 하였다. 이 견해에서는 아마도 명명동사 ‘名<sub>F</sub>[일하]’의 유무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이 동사가 있으면 P에는 대격조사 ‘<sub>F</sub>[을]’이 통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비하여 ‘名<sub>F</sub>[일하]’가 없을 때에는 통사구조가 불분명해진다. 즉, (2a)에서는 P에 대격조사 ‘<sub>F</sub>[을]’이 통합되었지만 ‘名<sub>F</sub>[일하]’가 없다면 P에 주격조사 ‘<sub>I</sub>[이]’가 통합되어도 통사구조가 어그러지지 않는다.<sup>3)</sup> 문제가 되는 동사가 다분히 다의적인 ‘爲’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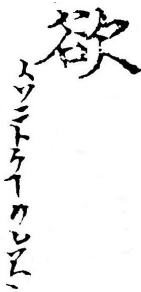
- (3) a. 어떤 것들을 다섯이라고 하느냐?  
 a'. \* [어떤 것들을 다섯이라고 하느냐?  
 b. 어떤 것들이 다섯이라고 하느냐?  
 b'. [어떤 것들이 다섯이라고 하느냐?

현대 한국어에서는 (3a)의 대격조사 ‘-을’과 (3b)의 주격조사 ‘-이’가 모두 쓰이는데, 이들의 심층구조가 같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하귀녀(2006)처럼 구태여 명명구문과 뜻풀이구문을 구별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3a')와 (3b')의 적격성의 차이를 강조할 수도 있다. 즉, (3a')의 내포문은 비문법적 통사구조인데 반하여 (3b')의 내포문은 문법적으로 적격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차이를 중시하면 (3a)와 (3b)의 심층구조는 동일하지 않은 것이 된다. (3b')은 명명구문에 속한다기보다 인용구문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박진호(1998)처럼 명명구문과 뜻풀이구문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2) 밑줄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필자가 친 것이다. 이하 같다.  
 3) 문중되지는 않지만 ‘何<sup>스</sup> 等<sup>ッ</sup> 一<sup>乙</sup> 爲<sup>五</sup> 卽<sup>一</sup> / 소<sup>모</sup>’와 같은 예를 비문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림 1] 구인상: 2,24



[그림 2] 구인상: 3,17



[그림 3] 구인상: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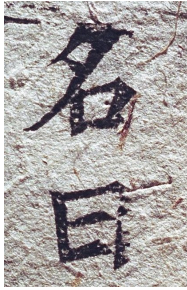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명명구문을 ‘P 名 Q’의 구문처럼 ‘名’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구문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P 爲 Q’의 구문은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상위문 동사의 지배영역에 따라 다의적일 수 있으므로 명명구문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13세기 중엽 자료인 『구역인왕경』의 ‘P 名曰 Q’ 구문은 명명구문의 일종이 된다.

- (4) a. 時十 十六 大國王七 中七 舍衛國主ニ 波斯匿王ニ 名<sub>ツム</sub> 曰<sub>白</sub> 月光<sub>ニ</sub> : <sub>ツ</sub>白<sub>ウ</sub> <sub>ム</sub> <sub>ク</sub> <sub>ニ</sub> (구인상: 2,243,1)
- b. 卅 十六 大國王八 中<sub>앗</sub> 舍衛國主<sub>이</sub> <sub>싫</sub> 波斯匿王<sub>이</sub> 名<sub>ツム</sub> <sub>니</sub> <sub>르</sub> <sub>스</sub> <sub>불</sub> 月光<sub>여</sub> <sub>흥</sub> <sub>스</sub> <sub>보</sub> <sub>린</sub>
- c. 그때 열여섯 大國王 가운데 舍衛國主<sub>이</sub> <sub>신</sub> 波斯匿王<sub>이</sub> <sub>이름</sub>하여 말하기를 月光<sub>이라</sub> 하시는 이는

[그림 1]의 ‘名<sub>ツム</sub>’를 지금까지는 ‘명<sub>흥</sub>야’ 정도로 읽어 왔는데, 장경준(2006: 275-279)에서는 이곳의 ‘<sub>ツム</sub>’를 ‘火’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그 논거로는 부점구결 자료의 ‘名’에 붙은 점토가 ‘火’에 대응하는 위치에 왔다는 점을 들었다. 그 부점구결 자료와 이를 해독한 문장을 장경준(2006)에서 인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sup>4)</sup>

4) 이 부점구결 자료 『유가사지론』 권제5와 권제8은 초조대장경의 일종으로서 11세기



[그림 4] 유가5: 9,9



[그림 5] 유가8: 10,12

- (5) a. 或復有<sup>ㄱ</sup> 天<sup>天</sup> 名<sup>名</sup> 曰<sup>曰</sup> [15~25(-)] 意<sup>意</sup> 憤<sup>憤</sup> ㄴ<sup>+</sup>, +52~53(1)) <유가5: 9,8-11>  
 b. 或 復 有<sup>ㄱ</sup> 天<sup>天</sup> 名<sup>名</sup> 曰<sup>曰</sup> x<sup>ㄴ</sup> 意<sup>意</sup> 憤<sup>憤</sup> ㄴ<sup>+</sup> x<sup>+</sup>  
 c. 혹 또 있다, 天이 이름을 말하기를 意憤이라 하는 것이.
- (6) a. 有<sup>ㄱ</sup> 出<sup>出</sup> 家<sup>家</sup> 外<sup>外</sup> 道<sup>道</sup> 名<sup>名</sup> 曰<sup>曰</sup> [15~25(-)] 无<sup>无</sup> 繫<sup>繫</sup> ㄴ<sup>+</sup>, +52(1)) <유가8: 10,12-15>  
 b. 有<sup>ㄱ</sup> 出<sup>出</sup> 家<sup>家</sup> 外<sup>外</sup> 道<sup>道</sup> 名<sup>名</sup> 曰<sup>曰</sup> x<sup>ㄴ</sup> 无<sup>无</sup> 繫<sup>繫</sup> ㄴ<sup>+</sup> x<sup>+</sup>  
 c. 있다, 出家外道가 이름을 말하기를 无繫라 하는 이가.

여기에서는 ‘名曰’이 마치 삼입구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앞에서 명명구문을 ‘名’이 사용된 구문으로 정의하였으므로 부점구결 자료의 ‘P 名曰 Q’와 같은 구문도 명명구문에 넣었다.

중요한 것은 (6)의 P에 주격조사 ‘-니[이]’가 통합되었다는 점이다.<sup>5)</sup> 이처럼 주격조사가 통합된 것은 ‘P 名曰 Q’의 ‘名’이 동사가 아님을 함의한다. 이곳의 ‘名’이 동사가 아니라 명사라면 이 ‘名’은 P의 격을 지배할 수 없다. 이때에는 P의 격을 지배하는 것이 ‘Q-[여]’의 ‘-ㄴ[여]’이다. 따라서 ‘P 名曰 Q’의 ‘名’은 ‘P 名 Q’의 ‘名’과는 달리 격 지배에 참여하지 않는다.<sup>6)</sup>

여기에서 명명구문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名’이 동사로 쓰임으로써 격 지배에 관여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名’이 명사

의 자료이다.

- 5) 문자로 기입한 석독구결의 명명구문에서는 P에 ‘-니[이]’가 통합된 예가 거의 보이지 않으므로 이 예는 매우 독특한 예이다.
- 6) 이에 따르면 장경준(2006)의 논의에서처럼 [그림 1~3]의 ‘名’에 붙은 토를 ‘ㄴ[히어]’로 읽는 것보다 ‘ㄴ[히어]’로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名ㄴ[히어]’는 격을 지배하지만 ‘名ㄴ’은 격 지배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로 쓰임으로써 격 지배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유형이다. 이 글에서는 앞의 것을 동사적 용법의 ‘名’이라 하고, 뒤의 것을 명사적 용법의 ‘名’이라고 부르고 있다.

### III. 석독구결의 명명구문

석독구결에 나오는 명명구문의 통사적 특성에 대해서는 박진호(1998, 2003)과 하귀녀(2006)에서 이미 자세하게 논의한 바 있고 이승재(2006)에서도 부분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글의 논의 전개에는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므로 앞의 논의와 조금씩 중복되더라도 명명구문의 통사적 특성을 들춰 보기로 한다.

5종의 석독구결 자료에<sup>7)</sup> 두루 등장하는 명명구문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다.

- (7) a. 是<sub>1</sub>乙 名<sub>下</sub> 竭盡施<sub>1</sub> : / 禾<sub>1</sub> | 〈화소35: 10,13〉  
 b. 이를 일하 竭盡施어 호리겨다
- (8) a. 是<sub>1</sub>乙 名<sub>下</sub> 說法三昧<sub>1</sub> 세<sub>1</sub> 力<sub>1</sub> : / 禾<sub>1</sub> | 〈화엄14: 20,15〉  
 b. 이를 일하 說法三昧<sub>1</sub> 세<sub>1</sub> 力<sub>1</sub>어 호리겨다
- (9) a. P를 일하 Q어 ㅎ-  
 b. P를 일컬어<sup>8)</sup> Q라고 하-

(7~8)을 유형화하여 단순화하면 (9)가 된다. (7a)와 (8a)의 ‘名<sub>下</sub>’를<sup>9)</sup> 읽

7) 5종의 구결 자료는 〈화엄경소 권제35〉(‘화소35’로 약칭), 〈화엄경 권제14〉(‘화엄14’로 약칭), 〈금광명경 권제3〉(‘금광3’으로 약칭), 〈구역인왕경 상〉(‘구인’으로 약칭), 〈유가사지론 권제20〉 등이다. 이들은 각각 12세기 전반기, 12세기 후반기, 13세기 전반기, 13세기 중엽, 13세기 후반기의 자료로 추정된다.

8) ‘일컬어’의 자리에는 ‘일러, 이름하여’ 등도 쓰인다. ‘일러’는 ‘이르(謂)+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름하여’는 파생명사 ‘이름’에 동사파생접사 ‘하’가 다시 통합되어 만들어진 동사이므로 자못 흥미롭다. 15세기에 이미 ‘일홈ㅎ-’가 쓰인 바 있다.

9) 『구역인왕경』 자료에서는 이것이 항상 ‘名<sub>1</sub>’로 나타난다. ‘名<sub>1</sub>’도 역시 ‘일하’로 읽을 수 있다.

a. 相待假法<sub>1</sub> … 名<sub>1</sub> 不定相待 : / 禾<sub>1</sub> | : 〈구인上: 14,8-10〉

는 방법은 이기문(1971)에서 찾을 수 있다. 이기문(1971)은 중세국어의 동사 ‘일큰-’을 ‘일[名]+큰[日]’으로 분석하여 그 어원을 밝힌 바 있는데,<sup>10)</sup> 이 어원론을 활용하여 필자는 누구보다도 먼저 ‘名下’를 [일해]로 읽을 수 있었다. 석독구결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펼친 이기문(1971)의 어원론이 석독구결의 ‘名下’로 말미암아 증명된 셈이다.

이 ‘名下[일해]’는 12~13세기의 석독구결 자료에서 두루 발견된다. 이것은 ‘일’ 어간이 독자성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쓰였음을 뜻한다. 이에 비하여 15세기 자료에서는 ‘일’ 어간이 독자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 복합 어간 ‘일큰-’과 과생명사 ‘일흠/일흠’에 그 흔적만을 남기고 사라져 버린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통시적 변화는 명명구문 ‘P 名 Q’의 통사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다음의 ‘名 1’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갑자기 막막해진다.

(10) a. 妙三昧 有<sub>ナ</sub> | 名<sub>1</sub> 隨樂 : ノ<sub>ヲ</sub> : 〈화엄14: 17,20〉

b. 妙三昧 두겨다 名<sub>1</sub> 隨樂여 호리여

이 ‘名 1’의 독법으로는 ‘명은’, ‘일후믄’, ‘일흔’의 세 가지를 가정할 수 있다. ‘명은’은 ‘名’을 음독하고 여기에 주제 보조사가 통합된 것으로 가정하는 독법이다. ‘일후믄’은 ‘名’을 ‘일흠’으로 혼독하되 여기에 주제 보조사 ‘-은’이 통합된 것으로 이해하는 독법이다. 이 두 가지는 ‘名’을 명사로 파악한 독법이지만 ‘일흔’은 ‘名’을 동사 ‘일’로 가정하고 여기에 동명사어미 ‘-은’이 통합되었다고 가정하는 독법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여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名 1’을 ‘일흔’으로 읽는 독법은 ‘名’이 석독구결에서 대부분 동사로 읽힌다는 점과 다음 예의 ‘닐은’을 감안한 것이다. ‘니르-’에 동명사어미가 통합되어 ‘닐은’이 되듯이, ‘名 1’도 동사 ‘일’에 동명사어미 ‘-1’이 통합된

b. 相待假法을 … 일하 不定相待여 호린여

10) 앞의 (4-6)에서는 ‘名日’을 복합어 ‘일큰-’으로 읽지 않고 ‘名火 日自尸’ 등으로 읽었다. 이것은 11~13세기에는 아직 복합어 형성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위의 몇 자료를 검토해 보면 ‘名’의 명사적 용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5)의 예는 명사적 용법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예이다. 다만 이곳에서는 P가 ‘三摩提’이고 Q는 ‘妙寶起’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수식구문이므로 어순이 도치된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유형화하면 (16)이 된다.

- (15) a. 善男子 菩薩摩訶薩 P 初發心 1 名 1 妙寶起 2-ノ P 三摩提 2 攝受 2-1 入  
 ... 得 3-ホ 生 3-カ <금광3: 8,16-17>  
 b. 善男子 菩薩摩訶薩 P 初發心은 名은 妙寶起여 흥 三摩提이 攝受흥드르 시  
 러곰 生흥며
- (16) a. P 2 名 1 Q 2-ノ P  
 b. P이 名은 Q여 흥.11)

이러한 유형화에는 (10)과 (15)의 통사구조가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15)의 ‘名 1 妙寶起 2-ノ P 三摩提 2’의 심층구조는 ‘三摩提 2 名 1 妙寶起 2-ノ P’인데, 여기에 관계화 변형이 적용되었다. 이 관계화 변형은 (14)의 ‘依功德力 2-ノ P 名 2 陀羅尼 2’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16)의 통사구조는 신빙성을 갖게 된다.

이에 따르면 ‘名’이 동사로 쓰인 통사구조는 (9)인데 비하여 명사로 쓰인 구조는 (16)이라 할 수 있다. (16)은 이른바 이중주어문의 일종이므로 이 유형의 이중주어문이 이미 12~13세기에도 존재했었다는 논의가 가능해진다. 물론 그 예가 많은 것은 아니다.

‘名’의 명사적 용법을 인정하였으므로 이제 이 ‘名’을 음독할 것인가 훈독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되돌아간다. 15세기의 ‘일흠/일흠’은 ‘일+음/음’으로 분석되는 파생명사이다. 15세기에서는 명사파생접사 ‘-음/음’과 굴절의 명사형어미 ‘-음/음’이 엄격히 구별된다. 그런데도 명사형어미 ‘-음/음’을 이용하여 파생명사 ‘일흠/일흠’을 만든 것은 ‘일흠/일흠’이 15세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만들어졌음을 말해 준다. 달리 말하면 12~13세기에는 파생명사가 아직 생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名 1’을 ‘일흠은’으로 훈독하지 않고 ‘명은’으로 음독해 둔다.

11) ‘P’를 ‘P이’로, ‘名은’을 ‘名이’로 각각 교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Q의 위치에 동사구나 문장이 온 예가 발견된다. 이들은 항상 ‘-ㅍㅓ[음데]’나 ‘-ㄱㅓ[은데]’로 끝난다는 특징을 가진다.

- (17) a. 是乙 名下 菩薩摩訶薩 屬提波羅蜜乙 成就ㅍㅓㅓㅓ/ㅓㅓㅓㅓ | <금광3: 3,9-10>  
 b. 이를 일하 菩薩摩訶薩이 屬提波羅蜜을 成就흥데 호리건이다
- (18) a. 是乙 名下 初處 〓 觀察ㅍㅓㅓㅓ/ㅓㅓㅓㅓ | <유가20: 17,04-05>  
 b. 이를 일하 初處아기 觀察흥데 호리인더
- (19) a. 是 如<sup>乙</sup>ㅓㅓㅓ 乙 名下 聖諦現觀 〓 入<sup>ㅓ</sup>ㅓㅓㅓㅓㅓㅓ | <유가20: 25,21-24>  
 b. 이 다<sup>ㅎ</sup>을 일하 聖諦現觀아기 入<sup>ㅎ</sup>건데 호리다
- (20) a. 是乙 名下 得<sup>ㄱ</sup>ㅓㅓ 所乙 如ㅓㅓㅓ 道乙 修習ㅓㅓㅓㅓㅓㅓ | <유가20: 29,20-21>  
 b. 이를 일하 얻은 바를 <sup>ㄱ</sup>ㅎ 道를 修習<sup>ㅎ</sup>안데 호리다

앞에서 이미 논의한 것처럼 Q가 명사구일 때에는 ‘-ㅓ[여]’ 또는 ‘-ㅓ[여]’가 통합되었다. 이 차이를 강조하여 동사구와 문장에 통합된 것은 명사구에 통합된 것과 크게 구별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ㅍㅓ[음데]’나 ‘-ㄱㅓ[은데]’의 ‘데’를 형식명사 ‘<sup>ㄷ</sup>+여’로 재분석하면(박진호 1998:188) 사정은 뒤바뀐다. 동사구와 문장에서도 ‘-여’로 끝난다는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둘을 종합하면 명명구문의 Q에 통합된 마지막 형태는 ‘-여’라고 일반화할 수 있다.

논의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17~20)의 상호 대비는 15세기의 선어말어미 ‘-거/어/나.’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17~18)에서는 ‘-ㅓ[거]’나 ‘-ㅓ[어]’가 통합되지 않았지만 (19~20)에서는 통합되었다. 이 차이를 시상법에 적용하면 ‘-거/어/나.’가 과거성을 가짐을 암시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ㅍㅓ[음데]’의 ‘<sup>ㅍ</sup>[음]’은 [-과거]의 통사자질을, ‘ㅓㅓㅓㅓㅓㅓㅓ[ㅎ건데]’와 ‘ㅓㅓㅓㅓㅓㅓㅓ[ㅎ안데]’의 ‘<sup>ㄱ</sup>[은]’은 [+과거]의 통사자질을<sup>12)</sup> 갖기 때문이다. (19)와 (20)의 상호 대비에서는 고영근(1980)이 논의한 바 있듯이 비타동사에는 ‘-ㅓ[거]’가, 타동사에는 ‘-ㅓ[어]’가 통합됨을 확인할 수 있다.

12) 이들을 각각 [-상태]와 [+상태] 자질로 기술할 수는 없다. (14~17)의 ‘成就, 觀察, 入, 修習’ 등은 모두 동사이지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명명구문이 의문문에 내포된 문장에서는 Q에 통합되는 형태가 달라진다. 평서문에서는 ‘-ㄷ/ㄹ[예]’가 통합되지만 의문문에서는 ‘-니 하모[익고]’나 ‘-니 이이다’가 통합된다. 이들 뒤에 의문형어미를 가지는 ‘-스모[호리고]’나 ‘-스모[호리고]’가 온다.

- (21) a. 云何<sup>ㄷ</sup> 初地 而<sup>ㄹ</sup> 名<sup>下</sup> 歎喜<sup>니 하모</sup> 스모<sup>스</sup> 로<sup>스</sup> 나<sup>스</sup> 牙<sup>入</sup> 113) 〈금광3: 6,22-23〉  
 b. 云 何<sup>어</sup> 初地<sup>로</sup> 일하 歎喜<sup>익고</sup> 호리고 호거리든
- (22) a. 何<sup>스</sup> 等<sup>스</sup> 7<sup>스</sup> 7<sup>스</sup> 名<sup>下</sup> 爲修所成慧 俱<sup>스</sup> 7<sup>스</sup> 光明想<sup>스</sup> 所治<sup>스</sup> 七法<sup>니</sup> 로<sup>스</sup> 모 〈유가20: 12,01-02〉  
 b. 엇(?)오 다<sup>스</sup> 7<sup>스</sup> 7<sup>스</sup> 名<sup>下</sup> 爲修所成慧 俱<sup>스</sup> 7<sup>스</sup> 光明想<sup>스</sup> 의 所治<sup>스</sup> 7<sup>스</sup> 七法<sup>이다</sup> 호리고
- (23) a. 云何<sup>스</sup> 7<sup>스</sup> 7<sup>스</sup> 名<sup>下</sup> 爲多諸思擇<sup>니</sup> 로<sup>스</sup> 모 〈유가20: 27,16-17〉  
 b. 云 何<sup>스</sup> 7<sup>스</sup> 7<sup>스</sup> 名<sup>下</sup> 爲多諸思擇<sup>이다</sup> 호리고

이 ‘-니 하모[익고]’와 ‘-니 이이다’는 현대어의 ‘-이라고’나 ‘-이라’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기원적으로는 계사 ‘-이-’의 활용형이다. ‘-니 하모[익고]’의 ‘-니[기]’과 ‘-모[고]’가 어떤 형태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그 앞에 온 ‘-니[이]’는 계사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니 이이다’는 계사에 종결어미 ‘-다’가 통합된 것임이 확실하다. 따라서 ‘-니 하모[익고]’도 계사의 활용형이라고 하여 어그러질 것이 없다. 후대의 자료에서는 계사 ‘-이-’ 바로 뒤에 종결어미 ‘-다’가 연결되면 ‘-다’가 ‘-라’로 교체된다. 그러나 (22~23)의 예에서는 이러한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예들은 명사구 Q에 통합된 ‘-ㄷ/ㄹ[예]’의 형태론적 범주를 논의할 때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ㄷ/ㄹ[예]’를 명명의 조사로 보는 견해(박진호 1998:188)가 있지만, 기원적으로는 계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즉 ‘-ㄷ/ㄹ[예]’는 계사 ‘-이-’에 모종의 어미 ‘-어’가 융합된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 (21)의 ‘-니 하모[익고]’와 (22~23)의 ‘-니 이이다’는 이 가능성을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귀중하다.

13) 먹으로 적어 넣은 원래 구절토는 ‘니 하모 스모 로 나 스 牙 1’이다. 그런데 『금광명경』에는 점토도 기입되어 있는데 이를 참고하면 ‘니 하모 스 로 나 스 1’이 올바른 것으로 드러난다.



대신에 ‘-스리, -ㄹ리, -ㄴ리, -어리’ 등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12~13세기의 석독구결의 ‘-여’가 14~15세기의 송독구결에서는 ‘-이라’ 계통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시적 변화는 석독구결의 ‘-여’가 계사 계통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한다. ‘-여’를 계사의 활용형 ‘-이+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여’가 ‘-이라’ 계통으로 바뀐 현상을 자연스럽게 기술할 수 있다. 반면에 이 ‘-여’를 명명의 조사로 보는 견해에서는 어찌하여 조사류가 계사 계통으로 대치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24~26)의 D에서는 명명의 대동사 ‘·[히]’가 눈에 띄지 않는다. P에 대격조사가 통합되었음에도 대동사가 쓰이지 않은 것은 문법적으로는 과격적이다. 이 과격을 강조하여 이 자료의 구결을 믿을 수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15세기의 언해문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문장이 자주 눈에 띈다. 따라서 이 자료를 무시하기 전에 어찌하여 이러한 종류의 문장이 쓰일 수 있었는지를 먼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혹시 두 유형의 명명구문이 뒤섞인 결과 D와 같이 특이한 문장이 사용된 것은 아닐까? 여기에서는 ‘名’이 동사로 쓰인 것인지 명사로 쓰인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단정하기 어렵지만 두 가지 문장 유형이 뒤섞였을 가능성을 열어 두기로 한다.

위의 여러 예문에서 또한 눈에 띄는 것은 P에 통합된 형태이다. 14~15세기의 송독구결 자료에서는 이것이 항상 대격조사 ‘-니[를]’로 나타난다. 이것은 ‘名’이 아직도 동사로 기능하였음을 말해 준다. 즉 석독구결의 전통을 이어받아 송독구결에서도 ‘名’이 동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말해 주므로 여기에서는 통시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名’에 활용어미가 통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점이 미해결이기는 하지만, P에 대격조사가 통합되었다는 사실은 ‘名’이 동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열어 준다.

그런데, (24~26)의 15세기 언해문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 (24~26)의 X 예들은 모두 언해에 앞서 한문에 한글로 토를 단 구결문이고 Y는 이것을 언해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P에 대격조사 ‘-를/를’이 통합된 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X나 Y 예문의 P에는 주제 보조사 ‘-는’이나 주격조사 ‘-이’가 통합될 뿐이다. 이것은 15세기의 언해문에서는 동사적 용법의 ‘名’이 사

라졌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위의 Y 예문이다. Y 예문에서는 ‘名’을 모두 ‘일흠’이라는 명사로 번역하였다. 그 결과 ‘名’의 동사적 용법 ‘P를 일하 Q여 흐-’가 모두 명사적 용법의 ‘P는 일후미 Q이라 (흐-)’로 변화하였다.

동사적 용법이 사라진 대신에 그 자리에 명사적 용법이 들어선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동사가 제 기능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명사로 대체되었다는 것은 통사구조의 변화를 당연히 수반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통사 통사론에서는 어휘 형태가 문법화하여 빚어내는 변화를 찾아내는 데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sup>15)</sup> 협의의 문법화는 널리 알려져 있듯이 어휘 형태가 문법 형태로 기능을 바꾸는 현상이다. 필자는 이에 덧붙여 동사가 명사로 바뀌으로써 빚어내는 통사구조의 변화도 이에 못잖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법화에서는 오히려 통사구조의 변화가 부분적인 것에 그칠 때가 많지만 동사가 명사로 바뀌는 것과 같은 품사 변화에서는 통사구조가 전면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변화에 새로이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명명구문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그 해답은 동사 ‘잃’의 마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15세기 이후의 문헌 자료에서는 동사 ‘잃’의 예를 찾을 수 없다. ‘名은 일후미나 名之는 일흠 지흠 씨라(1459월석서: 4b)’와 ‘號는 일흠 사마 브르는 거시라(1459월석1: 15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名’을 동사로 풀이한 예는 나오지 않는다. 동사 ‘잃’은 이미 마멸되었고, 복합어 ‘일킬-’과 파생어 ‘일흠’에만 그 흔적이 남아 있을 뿐이다.<sup>16)</sup>

그런데 15세기 한글 문헌의 ‘일킬-’ 동사는 ‘名’의 의미가 아니라 ‘稱’의

15) 문법화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는 권재일(1998)을 참고하기 바란다.

16) 동사 ‘잃’의 마멸 원인을 밝히기 쉽지 않다. 전통적 기술 방식에서는 동음충돌 회피 현상을 그 원인으로 제시할 것이다. ‘잃’ 어간에는 ‘名’의 의미뿐만 아니라 ‘失, 亡’의 의미가 있는바, 이 둘이 동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名’의 동사 ‘잃’이 사라졌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것은 편의상의 해석일 뿐 정곡을 찌른 것은 아니다. ‘名’에 ‘아/어’가 통합되면 ‘일하’가 되지만 ‘失’에서는 ‘일허’가 되어 모음조화에서 서로 행동을 달리 한다.

의미로 쓰였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큰-’이 기원적으로는 ‘名+日’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15세기에는 ‘칭하다, 말하다, 거론하다’ 등의 의미로 변질되어 사용되었다.

- (27) a. 稱은 일크를 써오 <1459월석17: 23a>  
 b. 稱念은 일크라 念홀 써라 <1459월석7: 60b>  
 c. 名稱은 일흠 일쿨유미라 <1459월석10: 64a>  
 d. 큰 므레 떠가다가도 일후믈 일크르면 즉자히 녀튼 짜홀 어드리어며 <1447석보21: 3b>  
 e. 홀 번 經사 일흠 일크르면 蓮華ㅣ 이베 나고 <1459월석18: 58a>
- (28) 그 性은 … 기러 第一義 諦라 일큰느니라 <1459월석9: 23a>

그 결과 ‘일큰-’이 명명구문에 쓰인 예를 찾기가 쉽지 않다. 초기의 한글 문헌인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에서는 (28)의 예만 찾을 수 있을 뿐이다.

반면에 파생명사 ‘일흠’에서는 ‘名’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된다. ‘일흠’이 명명구문에 쓰인 예를 찾아 통사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P이 일후미 Q이-’ 유형이다. 이것은 이른바 이중주어문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 (29) P이 일후미 Q이-
- a. 그삐 홀 菩薩 比丘ㅣ 일후미 常不輕이러라 <1447석보19: 29a>  
 b. 그에 부테 겨사디 일후미 釋迦牟尼시니 <1447석보19: 40b>  
 c. 그 體는 일후미 陀羅尼오 그 用은 일후미 呪ㅣ니 <1447석보21: 24a>  
 d. 도흔 곶 머근 머리는 일흠이 迦嚩茶ㅣ러니 世尊ㅅ 몸이 이 녀시러시니<sup>17)</sup> <1447월인상: 49b>  
 e. 根이 이러 胎에 나 根과 境과 셋구미 일후미 觸이니 <1459월석2: 22b>  
 f. 煩惱에 더럽디 아니호미 일후미 菩提오 生死에 분디 아니호미 일후미 涅槃이니 <1461능엄1: 82b>

이 유형에는 ‘P이’ 대신에 ‘P는’이 온 것도 포함한다. 통사구조 상으로는

17) 이의 對句는 다음과 같다.

모딘 곶 머근 머리는 優婆嚩茶ㅣ러니 調達이 몸이 더 녀시러니 <1447월인상: 49b>

이 두 가지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으로 묶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예문은 『석보상절』을 비롯한 초기 문헌에서뿐만 아니라 간경도감본 『능엄경언해』 등에서도 두루 찾을 수 있다.

둘째, ‘P스(또는 -의) 일후미 Q이-’ 유형이다. 여기에서는 P에 속격조사가 통합된 것이 특징이다.

(30) P스(또는 -의) 일후미 Q이-

- a. 釋迦牟尼스 일후미 毗盧遮那ㅣ시니 <1459월석서: 5b>
- b. 뭇 처삼 서신 王스 일후문 摩訶三摩多ㅣ오 <1459월석2: 2b>
- c. 그 나랏 일홈이 利師跋이러니 님금 쫄이 기르시더니 <1459월석2: 12a>
- d. 錠光佛스 時節에 目連의 일후미 羅ト이오 어미 일후문 靑提러니 <1459월석,23: 92b>

P와 명사 ‘일홈’은 비분리 관계이면서 동시에 ‘일홈’이 P의 여러 속성 중의 하나일 때에는 이처럼 P에 속격조사가 통합되어 ‘일홈’을 수식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월인석보』에서 많이 발견되고 간경도감본 『능엄경언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셋째, ‘P를 일후물 Q이라 흐-’ 유형이다. 이 유형은 이중목적어문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에서는 첫째나 둘째 유형과는 달리 명명의 대동사 ‘흐-’가 필수적이다. 이 대동사 때문에 P와 ‘일홈’에 모두 대격조사가 통합될 수 있다.

(31) P를 일후물 Q이라 흐-

- a. 舍利弗아 더 짜홀 었던 전츠로 일후물 極樂이라 흐거노 <1459월석7: 63a>
- b. 었데 耳形을 일후물 識界라 흐리오 <1461능엄3: 40b>
- c. 었데 晴明흔 虛空을사 일후물 晴明흔 누니라 흐느노 <1461능엄2: 111a>
- d. 鴉흔 사르막 두려운 그리메 보믄란 일후물 므스기라 흐료 <1461능엄2: 81a>

P에 통합되는 대격조사 ‘-을/을’ 대신에 ‘-을사, -으랏’ 등이 온 예들도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은 초기 문헌과 간경도감본 『능엄경언해』에 두루 나타난다.



넷째, ‘P를 일후미 Q이라 (ᄃ-)’ 유형이다. 이 유형은 첫째와 셋째 유형이 뒤섞인 듯하여 흥미롭다. P에는 셋째 유형의 대격조사가 통합되고 ‘일후미’에는 첫째 유형의 주격조사가 통합되기 때문이다. 명명의 대동사 ‘ᄃ-’가 수의적이라는 점도 이 뒤섞인 특징을 뒷받침해 준다.

(32) P를 일후미 Q이라 (ᄃ-)

- a. 分段生을 여희어 人天供養에 맛당ᄃ며 無明 도즈글 주기니를 일후미 阿羅漢이라 (1461능업1: 25b)
- b. 다 잇는 디 업서 一切에 着호미 업수물 일후미 只스미라 ᄃ시더니 (1461능업1: 73b)
- c. 世間 虛空에 물와 물과 느라 든니는 여러 物像을 일후미 一切니 (1461능업1: 74a)
- d. 世엿 사르미 … 光明을 因ᄃ야 種種 相 보를 일후미 보미으 (1461능업2: 71b)
- e. 六根이 塵을 드리혀 물 일후미 사이라 (1461능업3: 1a)

이 뒤섞인 유형의 P에는 문장이 올 때가 많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이 유형의 P와 ‘일후미’가 분리 관계에 놓인다는 점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유형이 『능엄경언해』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능엄경언해』의 문장은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의 문장에 비하여 직역투가 많고 구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24~26)에 제시한 송독구결의 예문에서 이미 보았듯이 15세기 초엽까지의 송독구결 자료에서는 P에 항상 대격의 ‘-니[을]’이 통합되었다. 그 영향으로 이와 같이 뒤섞인 유형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송독구결 자료 D를 논의하면서 P에 대격조사가 통합되었으면서도 명명의 대동사가 보이지 않는 예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한 유형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역시 첫째 유형과 셋째 유형이 뒤섞인 결과일 것이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 유형의 ‘일후미’ 동사어간 ‘일-’에 명사형어미 ‘-음’이 통합된 것처럼 읽힌다는 점이다. ‘일후미’의 ‘-음’은 파생접사가 아니라 동명사어미일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은 명명의 대동사 ‘ᄃ-’가 쓰인 예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유형은 석독구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이 동사 어간

으로 기능하는 예일지도 모른다.

다섯째, ‘P를 Q이라 일흠ㅎ-’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항상 P에 대격조사  
사가 통합된다. 이 유형은 파생명사 ‘일흠’에 다시 ‘ㅎ-’가 복합되어 동사로  
쓰이되, ‘일흠ㅎ-’와 Q의 위치가 뒤바뀐다. 이 위치 이동과 동시에 명명의  
대동사 ‘ㅎ-’를 실질동사 ‘일흠ㅎ-’로 교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3) P를 Q이라 일흠ㅎ-

- a. 그럴씨 菩提心을 種子라 일흠ㅎ느니 <1459월석9: 20b>
- b. ㅎ다가 곧 이 見인댄 남굴 반드기 見이라 일흠흠디어니 <1461능엄2: 52b>
- c. 이러면 들홀 다 보미라 일흠호믈 아뵤디니 <1461능엄2: 73a>
- d. 브를 和合이라 일흠호믈 <1461능엄3: 76a>
- e. 生滅 업슨 거슬 自然이라 일흠흠뉘던 <1461능엄4: 69b>

(34) P를 Q이라 일흠 짱-

- a. 異熟과 異熟生을 異熟果라 일흠 짱느니 <1459월석11: 49b>
- b. 꿈를 迷타 일흠 지ㅎ니라 <1459월석11: 121b>
- c. 제 五塵을 內라 일흠 지코 <1459월석13: 18a>
- d. 世尊하 이 經을 므스기라 일흠 지ㅎ며 <1459월석21: 101a>
- e. 內六을 入이라 일흠 지호믈 <1459월석2: 21d>

『월인석보』에서는 ‘일흠ㅎ-’ 자리에 대개 ‘일흠 짱-’가 온다는 특징을 보  
인다.

한편, Q 위치에 문장이 온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35) Q가 문장인 예

- a. 이 보믈 지슨 사르믈 일후미 一切 부텃 모믈 보습다 ㅎ느니 <1459월석  
8: 28a>
- b. 이제 벌근 디 이실 時節에 어드운 相 보디 문호믈 도로 보디 문ㅎ느다  
일흠ㅎ려 <1461능엄2: 72b>
- c. 相이 本來 거르로믈 알며 性의 本來 眞을 보미 일후미 塵을 滅호고 覺에  
어우루미라 <1461능엄4: 44b>
- d. 세 가짓 光明을 因ㅎ 後에사 能히 보믈 일후미 和合ㅎ 相이디위 眞實스  
툰의 體 아니니 <1461능엄2: 72a>

석독구결에서는 명명의 대동사 앞에 온 문장이 ‘- 尸 ㅈ[으데], - ㅈ [으데]’

로 끝났는데, 15세기에서는 ‘-다’로 끝난다. 이것도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Q가 명사문일 때에는 물론 ‘-이라’로 끝날 때가 많다.

지금까지 15세기 한글 문헌에 나타나는 명명구문의 유형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名’이 동사적 용법을 보이는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의 ‘일흠’에 동사적 용법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흠’은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명명구문이 이중주어나 이중목적어로 실현되는 예가 적지 않았다. 이것은 석독구결이나 송독구결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징이다. ‘Pㅅ(또는 -의) 일후미 Q이-’ 유형도 보이는데 이것도 앞 시기의 자료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이중주어문 ‘P이 일후미 Q이-’와 이중목적어문 ‘P를 일후물 Q이라 ᄃ-’가 서로 뒤섞인 듯한 ‘P를 일후미 Q이라 (ᄃ-)’와 같은 유형의 문장이 눈에 띈다. 이 유형은 15세기 초엽의 송독구결 자료에서 이미 나타난다.

## V. 마무리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명명구문은 한문의 ‘P 名 Q’로 단순화할 수 있다. 이것이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P를 일하 Q여 ᄃ-’로 번역된다. 이때의 ‘일하’는 ‘일’ 어간에 ‘-아’가 통합된 것이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동사적 용법의 ‘일’이 없어졌다. 그 결과 동사 ‘일하’ 대신에 명사 ‘일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통사구조상의 변화를 초래한다. 석독구결의 ‘Pㄷ[를]’은 15세기의 한글 문헌에서는 ‘P이’ 또는 ‘P는’으로 바뀌게 된다. 한글 문헌에서는 명명구문이 이중주어문이나 이중목적어문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석독구결이나 송독구결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는 명명구문이다. 따라서 석독구결의 명명구문과 15세기의 명명구문은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송독구결은 물론 그 과도기적 위치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Q에 통합되는 ‘-ᄃ[여]’가 ‘-ᄃㅅ[이라]’로 바뀌는 등의 변화가 보이기도 하지만 P에는 여전히 ‘-ㄷ[을]’이 통합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고영근(1980), 중세어의 어미활용에 나타나는 ‘-거/어-’의 교체에 대하여, 『국어학』 9, 국어학회.
- 권재일(1998), 문법 변화와 문법화, 『방언학과 국어학』, 태학사.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 박진호(2003), 주본 화엄경 권제36 점토구결의 해독,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 이기문(1971), 어원수제, 『김형규선생충수기념논총』.
- 이승재(2006), 사라진 ‘-ㄱ[거]-’의 문법범주를 찾아서, 『21세기, 형태론 어디로 가는가?』, 박이정.
- 장경준(2006), 석독구결의 구결자 ‘火’과 ‘ㄷ’에 대하여, 『국어학』 47, 국어학회.
- 하귀녀(2006), 석독구결과 대명률직해의 명명 구성에 대하여, 구결학회 구두발표논문.